

1면에서 계속

“스님들의 수행환경이 개발과 성장 논리에 쫓아지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불교계의 목소리가 신뢰를 얻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불교계 내부의 법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지난 84년 고려대 법대 재학 시절, 서울 구로구 삼화포교원에서의 아화활동이 불교와의 첫 인연이었다는 김형남 변호사. 무엇보다도 조계종 종헌·종법의 체계적 정립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종헌·종법은 사회법 체계를 너무 수용하면서 불교 내부적인 특성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 하려고 하다보니, 사회법을 무차별적으로 차용해 승가 고유의 계율을 살리는데 데 부족했습니다. 계율에 의한 법제적 정비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김봉석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종단 내 자율적인 법률체계에 의한 불교계 자율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불교계는 사회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짙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지적이다.

이들은 이를 위한 방법으로, 현재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은 종헌·종법·종령 등 관련 법률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전국 교구본사를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다. “불교가 각 지역사회나 일반인들에게 더욱 두터운 신뢰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별 사찰의 불명확한 재산권 분쟁 문제들을 명확히 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특히 불자 법조인이 불교계에 진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법연수원 1000명 시대에 법조인들이 일할 곳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들은 단호히 ‘NO’라고 답했다. 할 일은 많다는 것이다. 양질의 법적 서비스는 다양해지고 넓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불교계에서는 그동안 이런 흐름에 떨어져 있어 불자로서 안타까웠다고 한다. 때문에 이들은 불자로서 신심을 키울 수 있고, 법조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불교계를 당당히 선택했다고 말했다.

“일과 수행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쁩니다. 앞으로 우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에게 법리적인 거둬들여 줄 수 있는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우 기자

# 최초 불교 마라톤 열린다

불교계가 주최하는 최초의 마라톤대회가 5월 경주에서 열린다.

경주 불교사와 경주시는 5월 16일 오전 10시 경주 화랑교육원 운동장에서 ‘불기2548년 제1회 부처님오신날 경주남산 산길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불교마라톤클럽연합회와 대구·경북, 경주 마라톤클럽연합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불교계가 주최하는 최초의 마라톤 대회라는 점과 함께 불교교지를 도는 산길 마라톤, 몸과 마음을 닦는 수행 마라톤, 일반인과 스님, 장애우와 봉사자가 함께 하는 자비실천의 마라톤으로 꾸며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대회는 화랑교육원을 출발, 남산 포석정을 돌아오는 20km 산길 마라톤과 함께 장애우들을 위한 10km길기 종목을 따로 두었으며,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가인원을 일반인 2천명, 장애우와 봉사자 548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자비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추천된 중증장애인 10여명에게 전통활예를 전달하고, 남산사랑 환경운동 캠페인도 함께 할 계획이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합장염주가 무료 배포되고, 당

일 불교사 무료관람의 기회도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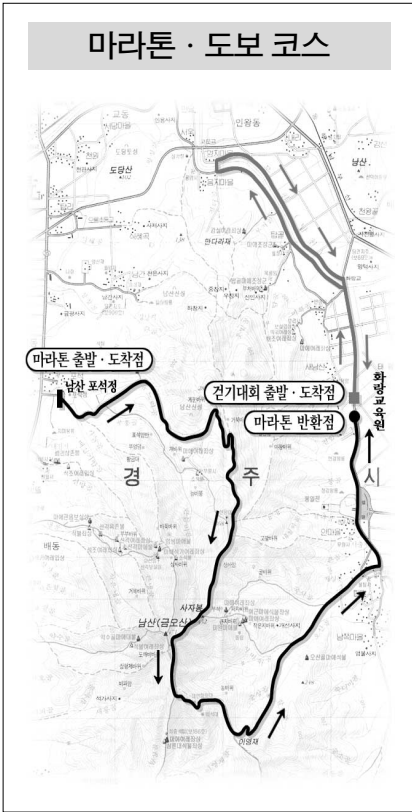
상은 남·녀 각 1위에서 10위까지의 선수에게 수여된다. 이와 함께 최고령·최연소 참가상, 베스트 드레서상, 최다 참가동호회상, 자원봉사단체상, 장애우 격려상 등 훈훈한 사랑이 느껴지는 다채로운 특별상도 준비돼 있다.

참가접수는 2월부터 개설될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개설 전까지는 불교마라톤클럽 까

## 부처님오신날 맞아 5월 16일 경주 스님·장애우 함께 수행·자비 실천

페(http://cafe.daum.net/buddhamarathon)에서 대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각종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며 마라톤 교표를 펼쳐는 불교마라톤클럽연합회 회장 진오 스님은 “대중화된 마라톤을 통해 자연스러운 불교교의의 장을 마련하고 불교적 역량과 일반인의 관심을 복지사업에 끌어와 자비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데 대회 개최의 취지가 있다”며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새로운 불교 문화 이벤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구=배지선 기자



마라톤·도보 코스

## 파라미타·청교련 문광부 지원단체 선정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와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가 ‘2004년 문화관광부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 단체로 선정돼 청소년 국제교류와 환경사업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파라미타, 한·몽골청소년교류 등 행사다양

공고의 드넓은 초원의 공기를 맡아에서 느낀다? 생각만으로도 짜릿한 문화체험의 기회가 있다. 파라미타 서울지부와 우리는 선수가 함께 개최할 ‘한·몽골청소년 국제친선교류 캠프’가 바로 그것. 소년소녀가장 50명, 포환, 한국측 300명과 몽골측 150명 등 450여명과 함께 할 국제교류 캠프는 몽골 울란바토르 나이암달 국제수련원에서 7월 28일~8월 2일까지 진행된다.

청소년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축제인 ‘음악놀이 페스티벌’은 1월부터 9월까지 각 지역별 예선을 거쳐 총 1천여명의 청소년들을 한자리(국립청소년수련원)로 결집, ‘밝고 건강한 청소년’이라는 하나의 음을 내게 된다.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다. 파라미타 총북지부가 담당하는 ‘금강경경당사와 환경사진 전시회’는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02)732-6165

청교련이 외국인노동자 문화체험·음성도서전달

외국인 노동자 문화체험·음성도서전달 임금제출, 산업재해, 폭행 등에 시달리다 결국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외국인 노동자들,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 그들의 환한 웃음을 되찾아 주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선다.

청교련이 3월 28일, 4월 25일 양일간 강화문화회관에서 펼쳐는 한국문화체험 한마당과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음성도서 만들기 가 바로 그것. 외국인 노동자 및 자녀 110여명과 청소년 100여명이 함께 할 체험마당은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가 한국의 전통문화와 따뜻한 정(情)을 나누고,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토록 도울 예정이다. (02)735-8166 김은경 기자

## 북한사찰 성지순례 추진

평북협, 올 사업 확정

인천~평양 직항로 이용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 이하 평북협)가 인천~평양 직항로 양복을 통한 북한사찰성지순례 2회 실시 추진 등을 올해 사업계획으로 확정했다.

평북협은 1월 14일 성북동 통일법당에서 법타 스님, 정인악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또한 북한회교자가 작품전시회(서울, 대구), 제23차 윤이상음악회 참가(9월

중, 결식아동 및 북한 동포들이 통일음악회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평북협 창립 12돌 기념법회 및 정기총회, 통일법당 통일약사여래부처님 점안 및 개원식은 2월 12일 성북동 통일법당에서 개최된다.

통일법당은 대지 81평, 건평 64평, 지상 2층 가옥을 개보수해 만들어졌다. 평북협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통일기원 약사여래본존불 삼천 약왕보살 조성발사’를 진행중이다. 문의 : (02)735-5558, 농협 053-01-256360 예금주(사)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남동우 기자

## 조계종-사회단체 만남 정례회

법장 스님, 간담회서 밝히

조계종과 시민사회단체간의 만남이 정례화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1월 19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신년맞이 불교신행·사회단체장 간담회에서 “정기적으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및 회의 개최를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시민사회단체 지원 공모사업 이전 또는 이후라도 수시로 종단과 연계사업 제안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장 스님은 모두 발언

을 통해 종단 수행체계 정립, 교구본사별 승려노후복지시설 건립, 포교콘텐츠 개발 및 온라인 수행서비스 체계 확립, 인사평가제도 도입, 전문문화체험센터 건립 등 올해 조계종 주요 사업들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법장 스님은 또 외국인노동자 및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등 사회활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법장 스님은 북한산 문제와 관련 “일부에서 정부와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추후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남동우 기자

## 불우이웃에 ‘설날 자비’

의정부 좋은일 하는 모임 차례상·신수회 교도소 방문

의정부 좋은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대표 정임)은 1월 19-20일 의정부 의2동 강당에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불우이웃 100세대에게 자비의 차례상을 전

달했다.

이날 행사는 어려운 이웃에게 설날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각 세대에 전달된 차례상에는 소고기 1근, 닭 1마리, 떡국 1kg,

만두 1kg, 유과, 약과, 사과, 배, 귤, 사탕, 생활용품과 세배돈 5천원이 들어있다.

차례상 후원에는 석굴암신도회, 관음사, 성진화교, 수월도량신도회, 고운박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약사암, 해인정사, 경기도 광역푸드뱅크, 관음정사가 참여했다.

이에 앞서 신수회(회장 이남숙)는 18일 목포교도소를 방문하고 불서 200여권, 내의 20벌, 영지금을 무언

고 불자 재소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서울, 대전, 광주 지역에서 교도소를 찾은 신수회원들은 불자 재소자들을 직접 면회하고 “불법에 의지해 함께 정진할것”을 다짐했다.

신수회는 현대불교신문 발행수기 담당자 모임을, 이번 재소자 위문품 전달에는 자비회, 광주불교교육원, 현대불교신문사가 동참했다. 김원우 기자

## 무심 스님 영어법회 2월 8일 대전 자광사

대전 유성구 학하동 탄하문화재단 자광사(주지 청어)는 2월 8일 오전 10시 직광전 3층에서 미국 출신 무심 스님(국제선원 계몽사 무상사 주지)이 진행하는 영어법회를 연다. 영어법회는 1시간 동안 통역없이 영어로 법문이 진행되며, 끝마로 참석자들 질문응답이 이어진다. 1958년 미국 필라델피아 펜실

베이니아에서 출생한 무심 스님은 1980년 미국 보스턴대학 화학과를 졸업했다. 스님은 1984년 화계사 승신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1986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화계사국제선원장과 부산 남산국제선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계몽사 국제선원 무상사 주지를 맡고 있다.

매달 둘째 일요일에 열리는 자광사 영어법회는 3월 14일 현각, 4월 11일 지광 스님이 진행한다. 문의 (042) 822-9220 김원우 기자

**밝은 청성 맑은 햇살로 빛나는 금강경 매주 불사**

금강경 독송회에서 창시자가 내려놓은 울림 10월이면 매년 매주를 만들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며,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매주 불사를 합니다.

금강경 불매주는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금강경 7독과 정진을 하면서 손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정진의 기쁨과 정성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북매주는 100% 우리림을 가마솥에 삶은 배 울림과 정감을 이용하며, 따스한 햇빛과 바람, 그리고 향토로 만든 흙집에서 40일간 자연발효시킨 전통 무공해 매주입니다.

해마다 드르시신 분들마다 옛 추억이 그대로 배어있어 아주 좋다고 하십니다.

■매주 1달 9kg ■경기도 수원(북매), 고양(북매), 경기, 서울, 충청

매주 주문 연락처 **Tel : 019-820-5587**

포항 054261-2231 부산 051514-3566 울산 052245-0337 수원 02742-0172 원주 033425-3803  
 김산 033425-7852 강원 033644-3009 서울 02742-0172 대구 053425-3803  
 대전 042862-8638 수원 031253-2677 광주 062681-3268

**복식품**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큰스님들의 수행을 돌아보고 가슴에 녹아내리는 법문을 들으면서 새로운 시작으로 당신을 인도합니다.**

 백지산 불교 기부금 모금 법문 1권 3000원	 비밀 소리는 조지스 법문 1권 3000원	 계곡 물 조지스 법문 1권 4000원	 부처님 오신날 조지스 법문 1권 4000원	 공경한 신행 법문 1권 3000원	 88년 뒤 법문 1권 4000원	 성구도리 법문 1권 3000원	 신뢰하기 어려운 법문 1권 4000원	 추정자를 불로 법문 1권 3000원	 불 초고 법문 1권 3000원
 백지는 길게 불교 법문 1권 3000원	 갈산사 아리새 법문 1권 1000원	 정확하지 법문 1권 4000원	 구름은 법문 1권 4000원	 귀환한 사람 법문 1권 3000원	 나 혼자만이 법문 1권 3000원	 불교의 법문 1권 3000원	 꽃피는 법문 1권 4000원	 위대한 법문 1권 4000원	 발에 밟은 법문 1권 3000원
 무슨 빛부림 법문 1권 3000원	 사랑 스님 법문 1권 3000원	 법 사치는 법문 1권 4000원	 사색가 정효 법문 1권 4000원	 나의 청성 법문 1권 3000원	 불우에 대한 법문 1권 3000원	 자비로운 가는 법문 1권 4000원	 나부터 만든 법문 1권 3000원	 나와 너 법문 1권 1000원	
 불은 부르고 법문 1권 4000원	 사랑 스님 법문 1권 3000원	 조근 마비 법문 1권 3000원	 불자라는 법문 1권 4000원	 천지는 내 법문 1권 4000원	 단행이 하나 법문 1권 3000원	 신뢰를 위한 법문 1권 3000원	 행복한 법문 1권 3000원	 나를 놓아 법문 1권 4000원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불자님들이 다 함께 큰스님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각 스님 별로 한정 판권을 실시합니다. 더불어 각 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큰스님들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책(양장) + CD = 정가 50,000원 → 특별판매가 25,000원 (발송비 포함) \*10권 구입시 20만 원 (발송비 포함) 구입문의 : 02-446-0393**